

차이 나고 고유하고 드물고 기괴한 모든 것:  
All things counter, original, spare, strange

2024년 1월 13일

워싱턴 문인회

Washington D.C.

발표자: 박진임 (문학비평가)

## 「얼룩덜룩한 것의 아름다움 Pied Beauty」

Glory be to God for dappled things –

For skies of couple-colour as a brindled cow;

For rose-moles all in stipple upon trout that swim;

Fresh-firecoal chestnut-falls; finches' wings;

Landscape plotted and pieced – fold, fallow, and plough;

And áll trádes, their gear and tackle and trim.

All things counter, original, spare, strange;  
Whatever is fickle, freckled (who knows how?)  
With swift, slow; sweet, sour; adazzle, dim;  
He fathers—forth whose beauty is past change:  
Praise him.

-- by Hopkins, Gerard Manley

얼룩덜룩한 것들을 보며 신을 찬미할지니  
얼룩무늬 소처럼 두 색깔의 하늘,  
헤엄치는 송어의 장밋빛 점들,  
신선한 목탄같이 떨어지는 밤송이들, 부리 짧은 핀치새의 날개들,  
풀밭과 휴한지와 경작하는 땅들, 그 잘 구획되어 맞물린 땅의  
모양새,  
다양한 직업들과 그들의 장비와 도전과 장식,

반대되고, 고유하고, 드물고, 이상한 그 모든 것들,  
모양이 변하고 얼룩 투성이인 모든 것들,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  
뉘라서 알리요?)

빠르고 느리고, 달콤하고 시고, 빛나고 어두운 것 모두 지닌 채,  
신은 변하지 않을 아름다움을 창조하였으니,  
그를 찬미할지어다.

-- 졸역

문학 이론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1993년의 연설에서  
제라르 맨리 홉킨스 인용.

“반대되고, 고유하고, 드물고, 이상한 그 모든 것들”

김용익 : 초벌과 재창조의 이중 언어 작가

distance creates discovery

# 김용익

“작가는 ‘a writer writes’ 단 두 마디면 족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없다”

“이 책을 통영 분들에게 바칩니다(To the people of Tong-yong)”  
-- 김용익, *Love in Winter* (Doubleday & Company, 1969)

“나는 미국 유럽의 하늘도 보고 산길도 걸었으나 고국 하늘, 고향 길이 늘 그리웠다. 들과 풀 사이 쇠똥에 발이 빠졌던 그 골목길이 그리웠다.”  
-- 김용익, 『꽃신』 (동아일보사, 1984)

“우리나라에서도 곡필(曲筆)안하는 작가는 귀한 존재로서 존경받아야 합니다.”  
-- 김용익, 작가 최일남과의 인터뷰에서



# 김용익은 한국 작가인가 미국 작가인가?

김민영은 한국 문학의 정의에 필요한 네가지 요소로 ‘누가’ ‘무슨 언어로’ ‘무엇을’ ‘누구에게 읽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든다.

김용익은 영어로 창작한 후 동일한 작품을 스스로 한국어로 다시 창작하였다. ‘김용익이라는 한국인이(누가)’ ‘한국어로(무슨 언어로)’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무엇을)’ ‘한국 독자에게(누구에게)’ 읽힐 목적으로 창작한 작가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명실상부한 한국 작가라고 볼 수 있다.(김민영:7)

영어로 창작활동을 하는 목적을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영어로 표현하여 알리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얘기를 쓰는 데는 한국어가 적합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최일남: 110)

# 미국 문학계에서의 김용익

아시아계 이민자이거나 그 후손인 작가의 경우, ‘아시아계 미국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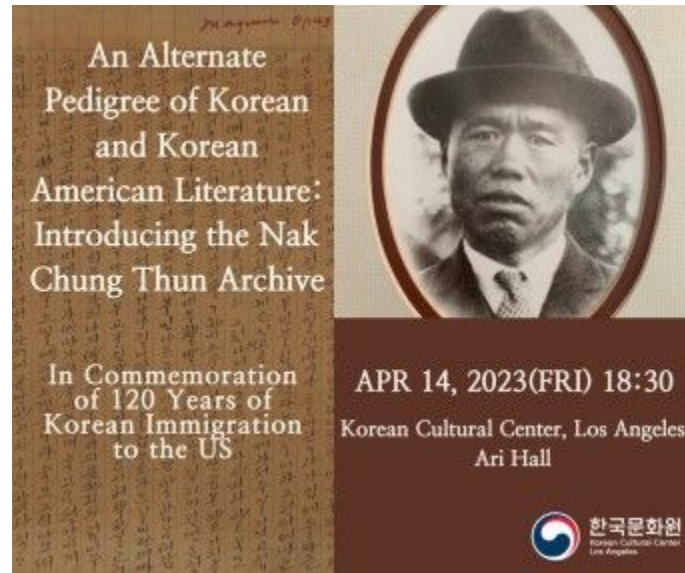
한국인 이민자나 한국인을 선조로 하는 작가는 한국계 미국작가로 다시 분류된다. 한국계 미국문학의 역사는 1920년대 ~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구자는 류일한과 강용흘이다.

- 유학 또는 망명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지식인들이 주축이 된 선구적 (1920~1950년대) 작가로는 유일한, 강용흘이 있고 다양한 전문작가들이 배출된
- 중기(1960~1970년대) 작가로는 박인덕, 김용익, 김은국 (리처드 김), 김기청 등이있다. 특히 한국계 미국문학의 중흥기라고 할만한 1980년대 이후 최근 시기의 작가 중 먼저 1980년대를 살펴보면, 피터 현, 차학경, 김난영, 마가렛 배, 캐시 송이 있고,
- 1990년대 작가로는 이창래, 노라 옥자 켈러, 수잔 최, 최숙렬, 미라 스타우트, 이혜리, 김명미, 게리 박, 펜클등의 작가들이 있다. (임진희: 143-144)

일레인 김(Elaine Kim)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영어로 쓴 작품들이 발표된 것은 주로 1980년 이후라고 언급한다. 김의 분류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문학은 다음과 같은 네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 첫째, 20세기 초와 196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 미국에 온 유학생과 정치적 망명자들,
- 둘째, 1903년부터 1905년까지 하와이에 이민 온 사람들의 후손들,
- 셋째, 20세기 초 캘리포니아 지방과 서부 지역 농장과 수산가공업에 종사하러 이민 온 사람들의 후손들,
- 넷째, 1965년에 이루어진 미국 이민 제한의 변경에 따라 1968년 이후에 이민 온 사람들의 후손들이다.(Kim: 156)

# 전낙청(1876~1953)





김은국은 1964년 순교자 (the Martyred)를 출간하여 일약 인기작가로 부상하였다. 순교자는 20주 연속 미국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이후 10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강용홀의 초당이 11개국어로 번역되었고 독일에서 독일어로 창작한 이미륵 또한 그에 버금가는 명성을 누렸는데 김은국은 강용홀과 이미륵의 명성에 준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테레사 학경 차의 ‘딕테’의 시대로 기억될 만하다. 1990년대는 한국계 미국문학의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창래(Chang-rae Lee), Nora Okja Keller. 이창래는 『원어민 Native Speaker』 『제스처 인생 a Gesture Life』 『가족Aloft』 ...

# 김용익의 생애

김용익은 부친 김채호씨와 모친 김옥정씨 사이에서 2남 1녀 중 차남으로 1920년 5월 15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난다. 그는 식민지 지배하에 고향에서 통영보통학교와 진주 중앙 중학, 중앙고보 (현 서울 중앙 고등학교)를 거쳐 일본 동경에 있는 청산학원 영문학과를 졸업한다. 이후 김용익은 부산으로 건너와 부산대학교의 영어영문학과에서 잠시 교편을 잡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948년에 도미한다. 미국으로 건너 간 김용익은 플로리다 남부대학 (Southern Florida College)을 다니며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그는 1951년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다. 김용익은 소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쓰기 위한 선택으로 아이오와 대학교 (University of Iowa) 대학원 창작부 (Writers Workshop)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다. 이때, 김용익의 등단작인 The Wedding Shoes가 창작된다. 당시 김용익의 나이는 37세이다. 김용익은 58년부터 6년 뒤인 65년까지 약 7년 동안 고려대,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한다. 등단작인 The Wedding Shoes를 미국에서 발표한 지 7년 뒤, 『현대문학』 (1963)에서 한국어로 발표한다.



# 작품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표한 김용익의 작품은 중편 소설 1편, 에세이 1편, 희곡 1편, 단편 소설 18편이다. 미국에서의 영어판 발표작은 중편 소설 1편, 단편 소설 16편으로 알려져 있다.

\* 「Old Korean Songs」 . 『Phoenix』 제5 집, (고려대학교 영문학회, Summer, 1959)등 신발굴 자료

김용익의 단편들은 국내에서는 1981년 금성출판사 간, 『현대한국단편문학전집 20권, 인간/꽃신 외』에 수록되어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꽃신」 외에 「겨울의 사랑」, 「주역과 T. S. 엘리엇」, 「동지 날 찾아온 사람」, 「밤배」가 수록되었다. 그 책에 따르면 「밤배」는 「여기서는 달이 보여(From Here You can See the Moon)」라는 제목으로 미국 『텍사스 계간지(Texas Quarterly)』에 게재되었던 것을 원작자가 한글로 다시 창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 『푸른 씨앗 Blue in the Seed』

『푸른 씨앗 Blue in the Seed』은 1964년 미국의 리틀, 브라운(Little, Brown)

사에서 출간되었다.

이후 그 작품은 1966년 독일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덴마크 교과서에 게재되었다. 1967년에는 오스트리아 정부 청소년 명예상을 수상했다.

한글판은 『푸른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1991년 샘터사에서 간행되었다.

김용익의 문학 소재는 한국의 토속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주제는 ‘다양성(diversity)’과 ‘통합성(unity)’이라는 두 축 사이의 긴장과 균형이라는 미국 문화의 본질에 닿아 있다.

『푸른 씨앗』의 한글판 서문에서

“나는... 눈빛이 다르다 하여 이 작품의 주인공 천복이처럼  
따돌림을 당하는 등 형제 싸움 같은 인종 차별이 없고, 인류의  
앞날이 우리네의 지난 세월보다 더 평화롭게 서로 도와가며  
조화로울 수 있기를 축원하는 나의 꿈을 표현하고 싶었다(4)” 고  
밝힌다.

“내 나이 삼십이 다 되도록 이날 이때까지 색깔이나 크기 모양이  
꼭 같은 전복은 못 봤거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두 쌍둥이 세  
쌍둥이들도 아주 같지는 않거든...(43)”

삼판 장터 요술쟁이: “두 눈을 가졌으면 두 푼이요. 한 눈 외눈쟁이는 한 푼이고 눈 멀었으면 공짜요 공짜. 먼 눈 노인은 뒷자리 앉고 가까운 눈 애들은 앞자리 앉고 똑 알맞게 좋은 눈은 가운데 앉으소이(9).”

방구석에 작은 손거울이 있기에 그는 거울을 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거울 속에 마주 내다보는 두 눈,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그 두 눈이 한없이 커 보였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놈 고기눈깔 새 눈깔아, 에이 보기 싫어. 겨우 두 개 쪼그마한 것이.” 그의 푸른 두 눈엔 슬픈 듯이 이슬이 고이고 눈부신 햇살이 반짝 빛났다. 노스님이 말한 ‘마음의 눈’이란 뭘까, 그는 거울 속의 두 눈을 손가락으로 만져 봤다. 이어 거울 뒤도 더듬어 봤으나 아무 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이었다. 보이기는 하지만 만질 수가 없는 그 푸른 두 눈은 눈물방울을 머금은 어머니의 눈으로 보였고  
웬지 마음속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거울을 탁 떨어뜨리며 ‘엄마’ 하고 울었다...그 어머니의 두 눈이 뵈보다도 그의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눈’이기에 그럴 것이다. (80-81)

“보소. 이 애 파란 눈빛 때문에 알아봤단 말이에요.”

“진짜여요.”

나비말 애들이 덩달아 말했다.

“파란 눈 가진 애는 이 세상에 저 애 하나뿐이여요. 우리 학교 다니는 앤데 그 애가 참말 임자라구요.” (93)

# 「꽃신」 : 한국의 전통 문화 예술에 바치는 비가

「꽃신」은 김용익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영문 소설로서의  
「꽃신」은 1956년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에 게재되었다.

한국에서는 『현대문학』 1963년 8월호에 최초로 발표되었다. 이후  
총 12회에 걸쳐 지면을 바꾸어 가며 발표되기를 거듭했다.

미국의 문학선집 『미드랜드: 25년간 아이오와 대학 창작 워크숍에서  
발표된 소설과 시 선집』 『Midland: twenty-five years of Fiction and  
Poetry selected from the Writing Workshops of the State University  
of Iowa』에 수록되었다.

「꽃신」은 이후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한국 전통 무용극으로 만들어져  
한국과 뉴욕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영화는 1978년  
남아진 흥주식회사에서 제작되었는데 이진모 각본, 고영남 감독으로  
이루어졌다. 무용은 김매자 무용단 ‘창무회’에 의해 연행되었다.

“요즘 혼인은 너무 서둘러서 메뚜기 혈레식이다. 혼삿날에 양화 고무신을 신거든. 내 딸은 고무신 백 날을 신키노니보다 단 하루라도 꽃신을 신키겠다.”(142)

“그 놈들은 꽃신 한 켤레 값이면 고무신 세 켤레 살 수 있다고? 난 그들이 고무신 백 켤레 갖다주어도 내 꽃신 한 켤레하고 바꾸지 않을 끼다.”(143)

김용익외 『현대한국단편문학전집 20권, 인간/꽃신 외』 금성출판사, 1981.



해가 저물었을 때 나는 가까운 언덕에 가서 풀밭에 얼굴을 묻고  
태산같은 슬픔에 내가 찌그러지지 않았는가를 의심했다. 여러  
사람들이 언덕을 넘어갔다. 어떤 늙은 부인의 흙 묻은 그 모양  
없는 신발에 나는 구역을 느꼈다. 그가 신은 신발도 한 때는  
꽃신이었던가. (148)

“잠든 어린이가 꼭 쥐고 자는 버들피리를 빼앗은 것 같이,  
아직도 신집 사람이 꽃신을 꼭 쥐고 있는 느낌이었다.(153)”

# 고향, 유년의 기억, 글쓰기

윤이상: 어린 시절 듣던 개구리 울음 소리가 그의 음악의 원천이었다

김용익 또한 통영의 개구리 울음소리와 파도를 자신의 문학의 근원으로 삼는다.

“나의 이야기는 내 밑바닥에 깔린 시감(詩感)이 원천이니 그것은 바로 나의 노래다”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고향 이미지”

# 글쓰기의 의미: 아니 에르노

“진짜 인생, 마침내 드러난, 밝혀진 인생, 실제 경험의 결과로 나온 유일한 인생은 바로 문학이다 라는 프루스트의 문장은 저에게 자명한 이치죠.”(『진정한 장소』, 94면.)

“문학은 인생이 아니에요. 문학은 인생의 불투명함을 밝히는 것이거나 혹은 밝혀야만 하는 것이죠.”(『진정한 장소』,, 95면.)

에르노는 글을 쓴다는 것은 인생의 경험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 쓰지 않은 경험은 일회성의 것으로 끝나고 결국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 박명숙 「토끼에게」

나는 간으로만 글을 쓰지 않았을까  
통통 부은 간을 들어 삶을 그려 냈으려니  
파도의 등비늘 같은 삶이 못내 가려웠을까

출전을 기다리는 간덩이가 무거웠을까  
바위를 품고 있는 축축한 머리통도  
한낮의 방파제 너머로 떠내려가는 귓바퀴도

갑골을 물에 새긴 완강한 경전 앞에  
질긴 풀을 씹으며 거친 입을 놀리며  
검붉은, 간을 흥정하는 여기는 내 땅이라

# 박명숙, 「불빛에」

불빛이라 아무려면 별빛보다는 불빛이라

이승의 개똥밭을 구르는 불빛이라

그 불빛 멀고 멀어도 별빛보다 멀다 해도

불빛에 눈이 멀지 별빛에야 눈이 머나

어둠을 깊이 찌르는 바늘만 한 저녁 불빛

타드는 목숨 한 올을 그 귓문에 꺾어 보네

# 빈센트 반 고흐

의욕적으로 일하려면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흔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훌륭하게 될 거라고 하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사람을 바보처럼 노려보는 텅빈 캔버스를 마주할 때면 그 위에 무엇이든 그려야 한다.... 반면에 텅 빈 캔버스는 “넌 할 수 없어”라는 마법을 깨부수는 열정적이고 진지한 화가를 두려워한다.

삶이 아무리 공허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더라도,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확신과 힘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어서 쉽게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는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요즘 모파상의 『피에르와 장』을 읽는 중인데 참 아름다운 소설이다... 서문에는 “소설가에게는 소설을 통해 자연을 더 아름답고 더 단순하며 훨씬 큰 위안을 줄 수 있게 과장하고 창조할 자유가 있다”고 써어 있다.

그 다음에 “재능은 오랜 인내로 생겨나고, 창의성은 강한 의지와 충실한 관찰을 통한 노력으로 생긴다”라는 플로베르의 말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쓰고 있다.

여기에 있으면 수백 점의 걸작품이 있는 전시회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런 날 무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겠니? 그저  
대충 틀만 잡은 스케치 몇 점이지. 그러나 그것 말고도 또 있다.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조용한 기쁨이다. (1883년 11월 16일)

너는 아직도 네가 평범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했지, 그러면서 너는 왜 네 영혼 속에 있는 최상의 가치를 죽여 없애려는 거냐? 그렇게 한다면 내거 겁내는 일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사람이 왜 평범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건 세상이 명령하는대로 오늘은 이것에 따르고 내일은 다른 것에 맞추면서 세상에 결코 반대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 때문이지.

우리가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려 노력해야 하는 까닭은 오직 자신이 느끼는 것을 더 정확하고 심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며 쓸데 없는 말은 적을수록 좋다네.

# The Lost Land

by Eavan Boland

I have two daughters.

They are all I ever wanted from the earth.

Or almost all.

I also wanted one piece of ground:

One city trapped by hills. One urban river.

An island in its element.

So I could say mine. My own.  
And mean it.

Now they are grown up and far away

and memory itself  
has become an emigrant,  
wandering in a place  
where love disassembles itself as landscape:

Where the hills  
are the colours of a child's eyes,  
where my children are distances, horizons:

At night,  
on the edge of sleep,

I can see the shore of Dublin Bay.  
Its rocky sweep and its granite pier.

Is this, I say  
how they must have seen it,  
backing out on the mailboat at twilight,

shadows falling  
on everything they had to leave?  
And would love forever?  
And then

I imagine myself  
at the landward rail of that boat  
searching for the last sight of a hand.



I see myself  
on the underworld side of that water,  
the darkness coming in fast, saying  
all the names I know for a lost land:

Ireland. Absence. Daughter.

내겐 딸이 둘 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두 딸 뿐이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땅 한 조각도 갖고 싶긴 했다.  
언덕에 둘러 싸인 도시, 그 도시의 강 한 줄기.  
이를테면 섬 하나를.  
그래서 “내거야, 내 것이라고”하고 말할 수 있게.  
진정으로.

딸들은 이제 자라서 멀리 가버렸다.  
내 기억은 이민자가 되어  
헤매어 다닌다.  
사랑이 흩어져 풍경이 되는 곳을.

내 아이들의 눈빛, 그 빛을 지닌 언덕과  
아이들이 원경이 되고 지평선이 되어 있는 곳을.

밤이면,  
잠의 언저리에서  
더블린 만의 해안을 본다.  
깎아지른 바위들과 화강암의 항구를.

나는 묻는다.  
“이게 그들이 보았던 것인가요?  
해질 무렵 뒤로 물러나는 우편선에 올라서?”

“버리고 가야 하는 모든 것 위에  
저녁 어둠이 드리울 때,  
영원히 그리워할 그 모든 것 위에?”  
그리곤

누군가의 마지막 손짓을 찾아 헤매는  
나를 그려본다.  
육지를 볼 수 있는 배 난간에 서서...

나는 바다의 지하세계에 있다.  
어둠은 급속히 몰려드는데...  
내가 아는,  
잃어버린 땅의  
모든 이름을 부르며...

“아일랜드, 부재(不在), 딸”

-- 이반 볼랜드, 「잃어버린 땅」 (줄역)

# Irish Poetry

by Eavan Boland

for Michael Hartnett

We always knew there was no Orpheus in Ireland.  
No music stored at the doors of hell.  
No god to make it.  
No wild beasts to weep and lie down to it.

But I remember an evening when the sky  
was dark at four.



When ice had seized every part of the city  
and we sat talking--  
the air making a wreath for our cups of tea.

And you began to speak of our own gods.  
Our heartbroken pantheon:

No Attic light for them and no Herodotus  
but thin rain and dogfish and the stopgap  
of the sharp cliffs  
they spent their winters on.

And the pitch-black Atlantic night.  
And how the sound  
of a bird's wing in a lost language sounded.

You made the noise for me.

Made it again.

Until I could see the flight of it: suddenly  
the silvery, lithe rivers of your southwest  
lay down in silence

and the savage acres no one could predict  
were all at ease, soothed and quiet

and listening to you, as I was.

As if to music, as if to peace.

# 타하 무하마드 알리, 「복수」

At times ... I wish  
I could meet in a duel  
the man who killed my father  
and razed our home,  
expelling me  
into  
a narrow country.  
And if he killed me,  
I'd rest at last,  
and if I were ready—  
I would take my revenge!

\*

But if it came to light,  
when my rival appeared,  
that he had a mother  
waiting for him,  
or a father who'd put  
his right hand over  
the heart's place in his chest  
whenever his son was late  
even by just a quarter-hour  
for a meeting they'd set—  
then I would not kill him,  
even if I could.

\*

Likewise ... I  
would not murder him  
if it were soon made clear  
that he had a brother or sisters  
who loved him and constantly longed to see him.  
Or if he had a wife to greet him  
and children who  
couldn't bear his absence  
and whom his gifts would thrill.

Or if he had  
friends or companions,  
neighbors he knew  
or allies from prison  
or a hospital room,  
or classmates from his school ...  
asking about him  
and sending him regards.



But if he turned  
out to be on his own—  
cut off like a branch from a tree—  
without a mother or father,  
with neither a brother nor sister,  
wifeless, without a child,  
and without kin or neighbors or friends,  
colleagues or companions,

then I'd add not a thing to his pain  
within that aloneness—  
not the torment of death,  
and not the sorrow of passing away.  
Instead I'd be content  
to ignore him when I passed him by  
on the street—as I  
convinced myself  
that paying him no attention  
in itself was a kind of revenge.

(Nazareth, April 15, 2006)

-- 'Revenge' by Taha Muhammad Ali  
(translated by Peter Cole, Yahya Hijazi, and Gabriel Levin)

때때로... 바라곤 한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나를 궁핍한 나라로 추방한 그 자를  
결투에서 만나기를.  
그래서 그가 나를 죽이게 되면  
마침내 나는 안식에 들 것이다,  
만약, 내가 준비되면  
난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원수에게 그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다거나

혹은 자기 아들이 십오분이라도 약속된 시간에

늦을 때 오른 손을 가슴에 올릴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런 사실이

명백해진다면...

그러면 나는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듯... 나는

그 원수에게 그를 사랑하고 늘 그리워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또는 그를 반겨 맞아줄 아내가 있고  
아버지의 부재를 견디지 못할 아이들,  
아버지가 가져다 줄 선물 앞에 기뻐할 아이들이 있다면.

또는 그에게  
그의 안부를 묻거나  
인사를 전할  
친구나 동료,  
알고 지내는 이웃들,  
감옥이나 병실에서 사귀 동지들,  
또는 학교 동창생들이 있을 때에도.

하지만

그가 고독한 자라고 판명된다면...

나무에서 잘려나간 나무 가지처럼...

어머니나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자매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지도 이웃도 친구도 없고

동료도 동지도 없다면,

그러면 나는 그 고독의 내부에 자리잡은 그의 고통에

아무 것도 더 보태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고문도,  
소천의 슬픔도.  
대신 나는  
길 가다 그를 스쳐 가게 되었을 때  
그를 무시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타일러 두었기에.  
내 원수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바로 그것이  
일종의 복수라는 사실을.  
(2006년 4월 15일 나자렛에서)

-- 타하 무하마드 알리, 「복수」 (줄역)

# Meeting at an Airport

BY TAHA MUHAMMAD ALI

You asked me once,  
on our way back  
from the midmorning  
trip to the spring:  
“What do you hate,  
and who do you love?”

And I answered,  
from behind the eyelashes  
of my surprise,  
my blood rushing  
like the shadow  
cast by a cloud of starlings:

“I hate departure . . .

I love the spring

and the path to the spring,

and I worship the middle

hours of morning.”

And you laughed . . .

and the almond tree blossomed

and the thicket grew loud with nightingales.

. . . A question  
now four decades old:  
I salute that question's answer;  
and an answer  
as old as your departure;  
I salute that answer's question . . .

And today,  
it's preposterous,  
here we are at a friendly airport  
by the slimmest of chances,  
and we meet.

Ah, Lord!

we meet.

And here you are

asking—again,

it's absolutely preposterous—

I recognized you  
but you didn't recognize me.  
"Is it you?!"  
But you wouldn't believe it.  
And suddenly  
you burst out and asked:  
"If you're really you,  
What do you hate  
and who do you love?!"

And I answered—  
my blood  
fleeing the hall,  
rushing in me  
like the shadow  
cast by a cloud of starlings:  
“I hate departure,  
and I love the spring,  
and the path to the spring,  
and I worship the middle  
hours of morning.”



And you wept,  
and flowers bowed their heads,  
and doves in the silk of their sorrow stumbled.

# Abdel-Hadi Fights a Superpower

BY TAHA MUHAMMAD ALI

In his life  
he neither wrote nor read.  
In his life he  
didn't cut down a single tree,  
didn't slit the throat  
of a single calf.

In his life he did not speak  
of the New York Times  
behind its back,  
didn't raise  
his voice to a soul  
except in his saying:  
“Come in, please,  
by God, you can't refuse.”

Nevertheless—

his case is hopeless,

his situation

desperate.

His God-given rights are a grain of salt

tossed into the sea.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about his enemies

my client knows not a thing.

And I can assure you,

were he to encounter

the entire crew

of the aircraft carrier Enterprise,

he'd serve them eggs

sunny-side up,  
and labneh  
fresh from the bag.

# 그리움

김일연

참았던 신음처럼 사립문이 닫히고

찬

이마 위에

치자꽃이 지는 밤

저만치, 그리고 귓가에

초침 소리

빗소리

# From Blossoms

by Li-Young Lee

From blossoms comes  
this brown paper bag of peaches  
we bought from the boy  
at the bend in the road where we turned toward  
signs painted Peaches.

From laden boughs, from hands,  
from sweet fellowship in the bins,  
comes nectar at the roadside, succulent  
peaches we devour, dusty skin and all,  
comes the familiar dust of summer, dust we eat.



O, to take what we love inside,  
to carry within us an orchard, to eat  
not only the skin, but the shade,  
not only the sugar, but the days, to hold  
the fruit in our hands, adore it, then bite into  
the round jubilation of peach.

There are days we live  
as if death were nowhere  
in the background; from joy  
to joy to joy, from wing to wing,  
from blossom to blossom to  
impossible blossom, to sweet impossible blossom.

Li-Young Lee, "From Blossoms" from Rose. Copyright ©  
1986 by Li-Young Lee. Reprinted with the permission of BOA